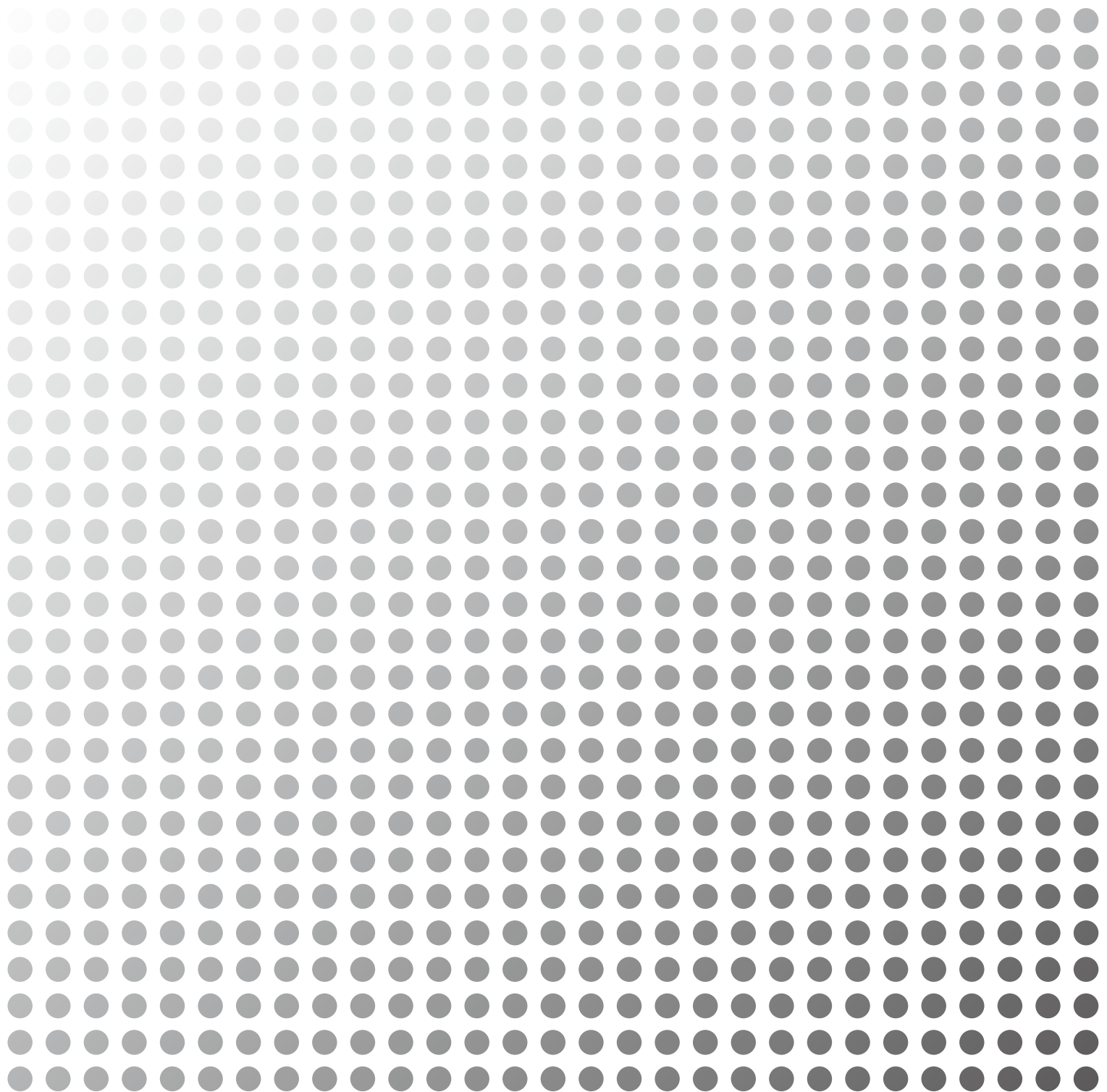


2013년 1/4분기 디자인산업 동향브리프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디자인진흥원

4 vol.11



본 보고서는 분기별 전문디자인업체의 체감 경기를 조사하여 디자인산업 분야별·지역별 경영활동별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동향 및 정책동향 분석을 통하여 디자인 비즈니스에 대한 전문지식을 전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연구자 고유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본 자료는 www.designdb.com을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

산업연구원 김홍석
02-3299-3056
thomaskim@kiet.re.kr

티아이 미디어 디렉터 김근우
010-9991-8517
gnookim@trendinsight.biz

디자인

이학수
010-9019-5597
lhs5597@hanmail.net

| | |
|---------------------------------|----|
| 요약 | 3 |
| 한국경제와 디자인산업(2/4분기 전망 종합) | 6 |
| I. 디자인산업 경기조사 | |
| 1. 2013년 1/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현황 | 10 |
| 2. 2013년 2/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전망 | 16 |
| 3. 디자인전문기업 해외진출 현황 | 22 |
| 4. 전문디자인업 생산지수 변화 추이 | 28 |
| II. 디자인관련업계 주요 이슈 | |
| 1. 전체 경기 현황 | 29 |
| 2. 디자인관련업계 경영일반 | 30 |
| 3. 디자인관련업계 투자 및 해외 진출 | 34 |
| 4. 해외 디자인관련업계 현황 및 주요 이슈 | 36 |
| III. 디자인관련 정책 현황 및 주요 이슈 | |
| 1. 디자인관련 기업육성 및 R&D 투자 정책 | 40 |
| 2. 디자인관련 법률 및 제도 | 43 |
| 부록 | |
| 1. 디자인산업 경기조사 개요 | 44 |
| 2. 2013년 1/4분기 전문디자인업 경기전망 조사표 | 46 |
| 3. 디자인산업 경기지수 추이 | 49 |
| 4. 산업일반 통계자료 | 54 |

I. 디자인산업 경기조사

1. 2013년 1/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현황

전문디자인업의 1/4분기 경기지수(D-BSI)는 59.4p로 전분기 56.2p 보다 3.2p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분기 63.3p 대비 3.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상승: 제품디자인업(54.1p→56.6p △2.5p), 인테리어디자인업(50.5p→65.9p △15.4p), 기타전문디자인업(40.8p→55.3p △14.5p)
 하락: 시각디자인업(69.2p→59.3p ▽9.9p)

● 지역별

상승: 서울지역(53.2p→58.1p △4.9p), 경인지역(63.1p→67.7p △4.6p), 호남지역(67.2p→69.2p △2.0p), 부산·울산·경남지역(42.2→67.3p △25.1p)
 하락: 충청지역(71.1p→53.7p ▽17.4p), 대구·경북지역(60.1p→33.9p ▽26.2p), 강원·제주지역(81.8p→79.3p ▽2.5p)

● 경영부문별

상승: 인력사정(79.2p→81.9p △2.7p)
 하락: 매출(65.0p→58.6p ▽6.4p), 채산성(62.3p→53.0p ▽9.3p), 자금사정(61.1p→59.6p ▽1.5p)

1분기 경기 호전 이유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46.2%)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내수 활황’(36.4%) 순이었음

1분기 경기 악화 이유

‘내수 부진’(54.5%)이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은 ‘불확실한 경제상황’(40.5%)으로 나타남

2. 2013년 2/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전망

전문디자인업의 2013년 2/4분기 경기전망지수는 103.7p로 전분기 81.7p 보다 22.0p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분기 109.4p 대비 -5.7%p 하락

● 업종별

상승: 제품디자인업(91.7p→109.6p △17.9p), 시각디자인업(90.0p→98.8p △8.8p),
 인테리어디자인업(73.4p→109.8p △36.4p), 기타전문디자인업(60.4p→96.8p △36.4p)

● 지역별

상승: 서울지역(80.1p→99.3p △19.2p), 경인지역(84.1p→107.6p △23.5p), 충청지역(101.2p→130.7p △29.5p), 대구·경북지역(78.3p→105.3p △27.0p), 부산·울산·경남지역(84.7p→107.0p △22.3p), 호남지역(88.3p→106.1p △17.8p), 강원·제주지역(70.6p→119.5p △48.9p)

● 경영부문별

상승: 인력사정(94.6p→97.2p △2.6p), 매출(83.9p→104.5p △20.6p), 채산성(80.5p→96.4p △15.9p), 자금사정(78.7p→92.9p △14.2p)

2분기 경기전망 호전 이유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51.0%)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내수 활황'(27.7%)
 '정부 경기부양 책'(20.2%) 순이었음

2분기 경기전망 악화 이유
 '불확실한 경제상황'(46.8%)과 '내수 부진'(46.7%)이 가장 많이 꼽혔음

3. 디자인전문기업 해외진출 현황

전문디자인업체의 해외진출 필요성

'필요하다'는 응답이 54.1%로 전문 디자인 업체의 해외 진출에 대해 과반 이상의 업체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해외진출 희망 국가

전문 디자인 업체의 69.3%는 '해외 진출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해외 진출 희망 국가로는 '중국'(17.8%)이 가장 높았고, '동남아시아'(8.7%), '유럽'(7.6%), '일본'(6.3%), '미주'(5.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해외진출 방법

현지 전시회/상점 전화 등 자체 해외마케팅(42.4%)을 고려하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국내 고객사와 동반 진출'(38.1%), 'KOTRA, 지자체 등 공공기관 활용'(37.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해외 프로젝트 계약 체결 방법

'디자인 용역 개발 계약'이 41.3%로 가장 높았고, '공동 디자인프로젝트 제작 및 연구 계약'(28.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2012년 해외 매출액 비중

'0%이상~10%미만' 이 46.4%로 가장 높았고, '10%이상~20%미만'(16.6%), '20%이상~30%미만'(15.6%), '30%이상~50%미만' (10.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2012년 주요 해외 고객사

'제조업'이 5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서비스업'(39.8%)으로 나타남. 이어 '공공기관'(18.3%), '건설업'(11.7%) 등의 순으로 높았음

4. 전문디자인업 생산지수 변화 추이

2012년 4/4분기 전문디자인업 생산지수는 111.0p로 조사되어 전분기 87.9p 대비 23.1p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분기 110.8p과 비슷한 수준임

서비스업 총 생산지수는 107.6p로 전분기(104.7p) 대비 2.9p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분기 106.7p과 비슷한 수준임

| 구분 | 2011년 3/4분기 | 2011년 4/4분기 | 2012년 1/4분기 | 2012년 2/4분기 | 2012년 3/4분기 | 2012년 4/4분기 |
|---------|-------------|-------------|-------------|-------------|-------------|-------------|
| 전문디자인업 | 90.2 | 110.8 | 95.5 | 107.2 | 87.9 | 111.0 |
| 서비스업 전체 | 103.2 | 106.7 | 102.1 | 104.9 | 104.7 | 107.6 |

II. 디자인관련업계 주요 이슈

KIDP, 2012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실태조사 - 디자인 불공정거래 중심

67%가 디자인 불공정거래 피해 경험이 있으며, 피해사례 1순위로 '합당한 이유 없이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꼽음

'착한' 디자인공정거래운동, 영세 디자인브랜드를 위한 새로운 유통 방식

영세 디자인브랜드의 유통구조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저렴한 수수료와 자유로운 창작물 전시 공간을 제공하는 '착한' 디자인공정거래 판매처들이 생겨나고 있음

디자인경영 - 디자인을 경쟁 우위 요소로 자체 R&D 상품 개발로 매출 증대

전자제품, 자동차 등 전문분야를 기반으로 제품 아이디어부터 디자인 콘셉트, 기술 및 제품 개발까지 아우르면서 자체 R&D 상품을 제작·판매함으로써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음

디자인특허 관련 이슈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2012년 5월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 5월까지 국내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건수 총 1,070건 중 피소가 821건(80%)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기업의 특허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 줌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디자인투자 증대

한국GM, 씨게이트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디자인센터 설립 증가

중국 건축관련분야와 전자제품분야를 중심으로 디자인 수요 급증

중국 내 젊은 중산층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디자인에 대한 수요 급증
유럽권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강세를 보이던 디자인컨설팅 분야에서 중국 디자인전문회사의 빠른 기술 향상과 비교적 낮은 임금 등이 경쟁력이 되어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확장하고 있음

III. 디자인관련 정책 현황 및 주요 이슈

정부가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창조형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함

KIDP, 창조경제시대 K-Design 브랜드 확산 추진 계획 마련

중소·중견기업 디자인R&D지원, 글로벌 거점 마련, 해외 디자인나눔 사업 확대 등

지자체의 글로벌디자인클러스터 육성 본격화

광주시 5대 신 특화산업으로 '디자인융합산업' 선정, 3년간 38억원 투입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설계 완성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미국 투자회사에서 5억 달러 투자 결정

디자인공정거래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및 대가 기준' 초안 마련

한국경제와 디자인산업(2/4분기 전망)

정부가 3월 말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기조로 돌입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회복 조짐과 함께 정부의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2/4분기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디자인업계도 2011년 이후 처음으로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경기전망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 수요부문의 경기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디자인업계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경기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경제

각 기관의 최근 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세계 경기 회복세와 신정부 출범 효과로 인해 대부분 2/4분기부터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결과를 보면 제조업은 상승폭이 높지는 않으나 1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1/4분기에 들어서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월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업종별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영애로요인을 보면 제조업은 내수부진(23.5%), 불확실한 경제상황(20.3%), 환율(9.4%) 순으로 나타난 반면, 디자인산업이 속한 비제조업은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내수부진(22.8%), 불확실한 경제상황(17.7%), 경쟁심화(13.4%) 등으로 나타나 여전히 내수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분기 경기 전망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의 2/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99p로 나타나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고 있으나 1/4분기 대비 상승폭이 30p에 이룸으로써 세계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최근 세계 경기의 호전 추세와 신정부의 경기회복 노력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경기 호조에 이러한 기대감은 수출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특히 높아 경기전망지수가 수출기업은 111p, 대기업은 105p로 1/4분기에 비해 각각 31p와 32p씩 높아졌다. 그러나 내수기업 및 중소기업이 상승은 하고 있지만 경기전망지수가 기준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회복에 있어서 기업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회복과 관련하여 상반기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그동안 경기회복을 주도해 온 수출경기의 회복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무역협회의 2/4분기 수출경기 전망지수(EBSI)는 1/4분기 대비 22.1p 상승한 100.5p를 기록하여 2011년 3/4분기 이후 7분기 만에 기준치인 100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특히 일본 엔화환율 하락과 원화환율의 상승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높아 아직은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디자인업의 1/4분기 경기실적지수(D-BSI)는 59.4p로 전분기 56.2p에 비해서는 3.2p 상승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전년 동분기 63.3p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2011년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가장 관심사인 경기회복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하여 수출경기 호조와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회복 노력 등은 분명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 회복 속도와 수요부문에 비해 느린 경기 회복 속도와 1/4분기의 상승현상이 계절적인 현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은 전망을 어둡게 하는 부분이다.

실제 통계청 전문디자인업 생산지수를 보면, 매년 4/4분기 대폭 상승 후 1/4분기에 다시 하락하는 비슷한 계절적인 변동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4/4분기에 경기가 상승국면으로 전환되었다가 1월과 2월에는 다시 81.6p와 70.9p로 다시 하락세로 반전하여 전문디자인업 생산지수와도 상충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4/4분기의 생산실적 상승이 디자인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계절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실제 이번 디자인경기조사에서 1/4분기 경기호전 이유로 계절적 요인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럼 디자인 생산지수는 분기별로 큰 기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경기실적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디자인업계의 경기침체 인식이 구조화 되어 있어 업계의 활력 회복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1/4분기 업종별 경기실적지수는 시각디자인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그동안 경기실적이 저조하였던 기타전문디자인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인테리어디자인이 그 뒤를 따랐다. 이에 비해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을 보였던 제품 디자인업은 56.6p로 1/4분기 54.1보다는 높아졌지만, 상승폭이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2.5p에 불과하여 제조업의 경기침체 여파가 디자인업계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대경권과 충청권 그리고 강원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권역이 경기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경기침체 등이 지역의 업종구조에 따라 디자인업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호전에도 불구하고 경영관련 경기실적은 인력사정을 제외하고는 매출, 채산성, 자금사정 등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호조가 경영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디자인업의 2/4분기 경기전망지수(D-BSI)는 103.7p로 전년 동분기 109.4p 대비 -5.7%p 하락하였지만 전분기 81.7p 보다 22.0p 상승하여, 2/4분기에 경기전망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2012년과는 달리 1분기의 상승국면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2분기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1분기와 마찬가지로 성수기 등 계절적인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수 호전이나 정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계절적인 요인은 인테리어와 제품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최근 전반적인 경기 회복 조짐과 정부의 부동산 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타 전문디자인업의 경우 최근 소비자심리지수와 가계소비지출지수가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고지출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시각디자인의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광고경기 예측지수에 따르면 2/4분기에 광고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지만, 광고 성수기 등 계절적인 요인 외에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올해 계절적인 요인 외에 내수요인의 영향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경기지수가 상승하여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가 전 지역에 고르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기 호전 전망을 반영하여 경영관련 지수의 경우 매출, 채산성, 자금사정 등의 경우 14p 이상의 높은 상승을 보인 반면, 인력시장 지수만 상승폭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기가 안좋은 시기에 오히려 인력사정이 나아지는 등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불안정한 인력시장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업계 해외진출

국내 협소한 내수시장 규모나 최근 내수경기 부진 등을 고려할 때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디자인업계에 대해 해외진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업체의 전체 업체의 76.1%가 진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진출 필요성의 경우 업종별로는 기타전문디자인업이나 인테리어, 제품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대전/충북/충남(66.9%), 강원/제주(85.0%) 등 비수도권지역, 그리고 규모별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10인 이상의 업체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달리 전문디자인업체의 69.3%가 해외진출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진출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2012년 해외매출의 비중에 대해서는 10% 미만이 46.4%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모든 업종에서 같은 모습을 보였다. 2012년 기준 주요 고객사의 경우 중복응답 기준 조업(50.7%), 서비스업(39.8%), 공공기관(18.3%)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고른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 매출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주요 고객 비중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향후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31.7% 기업의 진출 희망국가 조사에서는 중국이 1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유럽과 동남아시아가 각각 5.0%와 4.8%로 그 뒤를 따라 아시아지역을 주요 진출지역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특히 중국은 제품디자인업이나 인테리어디자인업, 동남아시아는 기타전문디자인업의 진출희망의사가 높아 업종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해외진출시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현지 전시회/상점 전화 등 자체 해외마케팅'(42.4%)이나 '국내 고객사와 동반 진출'(38.1%) 등 자체적인 노력이 높게 나타났지만, 'KOTRA, 지자체 등 공공기관 활용'(37.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해외진출에 대한 공공부문의 효과적인 지원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끝으로 해외프로젝트 계약 체결방법에 있어서는 '디자인 용역 개발 계약'(41.3%), '공동 디자인프로젝트 제작 및 연구 계약'(28.6%) 등 일회성방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장기 지속적인 '디자인 라이선스 계약'(18.3%)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해외

진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제품디자인이나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우 일회성 계약 비중이 높아 전반적인 계약방식 고도화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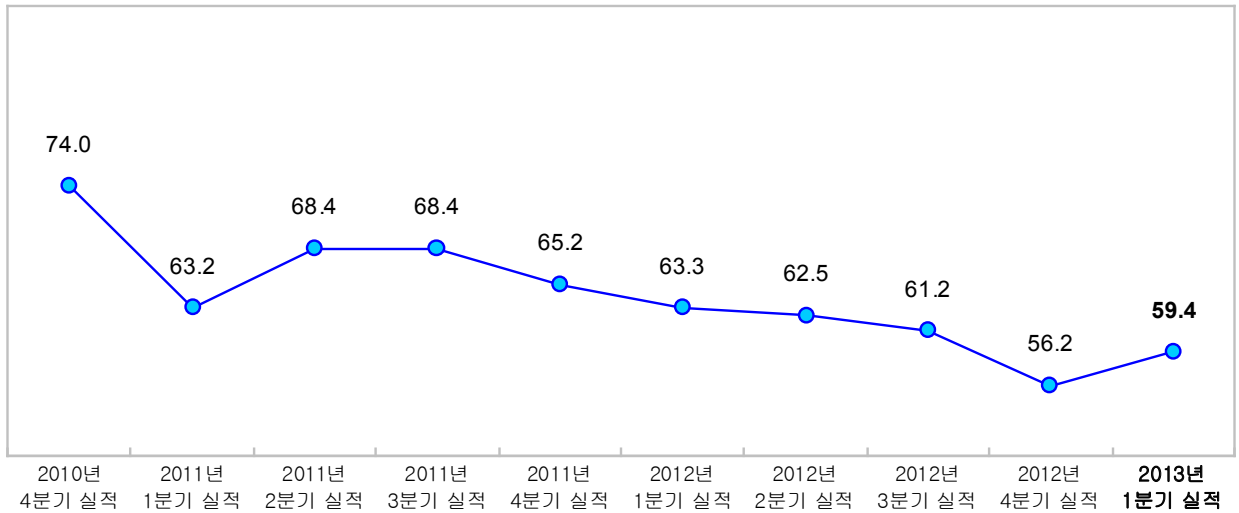
이번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국내 전문디자인업계의 국제화는 낮은 해외매출이나 해외진출 비중 그리고 높은 일회성 계약방식 비중 등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국내시장만을 통한 업계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디자인업계의 해외진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향후 디자인업계의 성장을 크게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외진출로 디자인업계의 인식 전환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한가지 긍정적인 결과는 공공부문을 통한 진출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디자인업계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해외진출 초기에 공공부문의 지원은 해외진출의 활성화 제고나 해외진출 실패율 하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부문 차원에서 업종별, 진출지역별로 차별적인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김 홍 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I. 디자인산업 경기조사

1. 2013년 1/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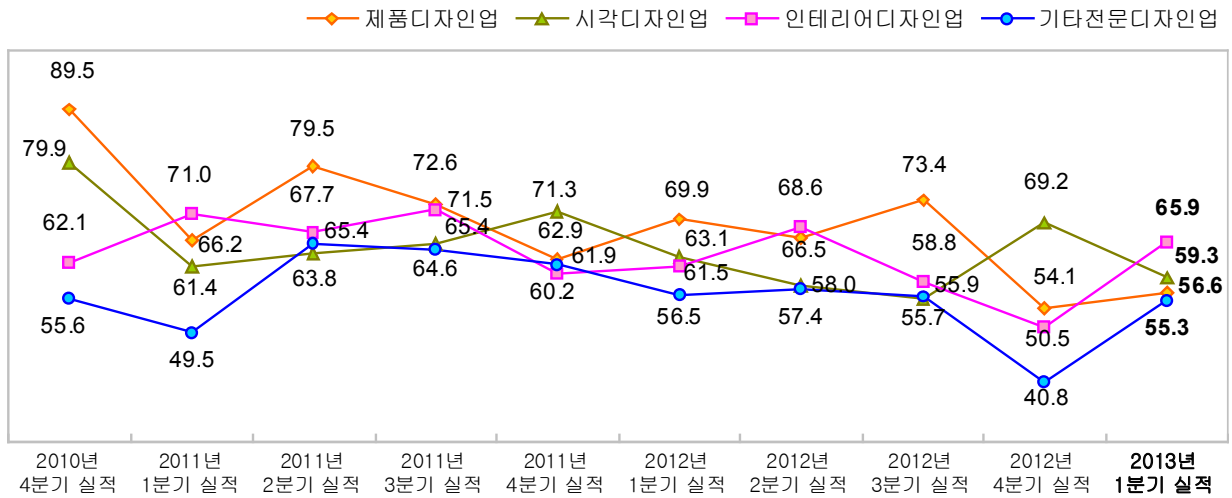


디자인산업 경기 종합

(경기전반) 전문디자인업의 1/4분기 경기지수(D-BSI)는 59.4p로 전분기 56.2p 보다 3.2p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분기 63.3p 대비 3.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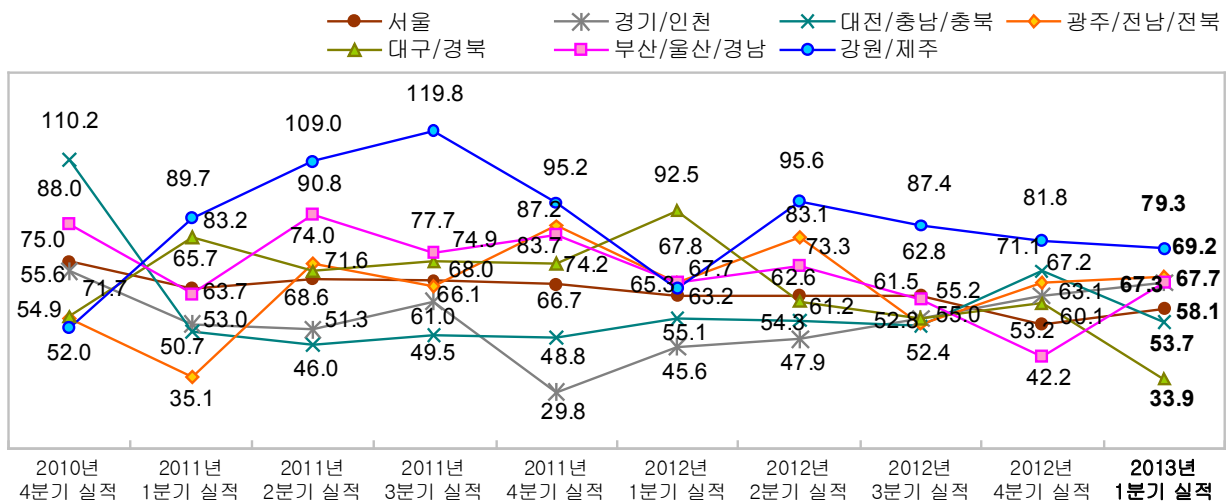
2011년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디자인산업이 상승세로 반전된 것은 긍정적이거나 주요수출국인 미국, 유럽 중국 모두 경기침체 상황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일시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높음

업종별 디자인산업 경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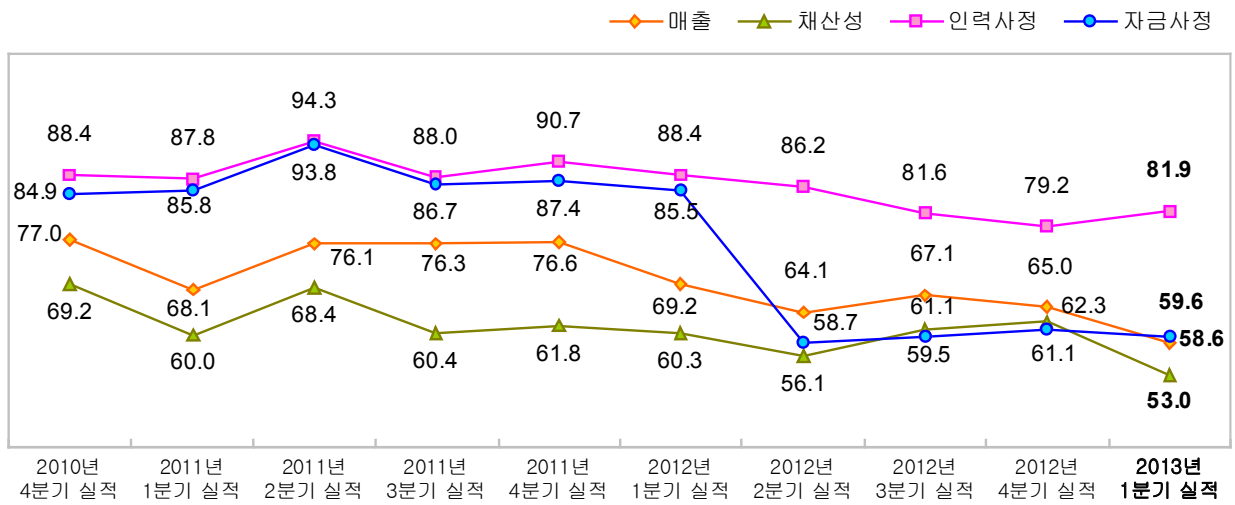
- **(제품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은 56.6p로 전분기 54.1p 대비 2.5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69.9p 대비 -13.3p 하락하였음
- **(시각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은 59.3p로 전분기 69.2p 대비 -9.9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63.1p 대비 -3.8p 하락하였음
- **(인테리어디자인업)** 인테리어디자인업은 65.9p로 전분기 50.5p 대비 15.4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61.5p 대비 4.4p 상승하였음
- **(기타전문디자인업)** 기타전문디자인업은 55.3p로 전분기 40.8p 대비 14.5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56.5p 대비 -1.2p 하락하였음

지역별 디자인산업 경기 현황



- (서울권) 서울지역의 경기지수는 58.1p로 전분기 53.2p 대비 4.9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63.2p 대비 -5.1p 하락하였음
- (경인권) 경기/인천지역의 경기지수는 67.7p로 전분기 63.1p 대비 4.6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45.6p 대비 22.1p 상승하였음
- (충청권) 대전/충남/충북지역의 경기지수는 53.7p로 전분기 71.1p 대비 -17.4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55.1p 대비 -1.4p 하락하였음
- (호남권) 광주/전남/전북지역의 경기지수는 69.2p로 전분기 67.2p 대비 2.0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67.8p 대비 1.4p 상승하였음
- (대경권) 대구/경북지역의 경기지수는 33.9p로 전분기 60.1p 대비 -26.2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92.5p 대비 -58.6p 하락하였음
- (부울경권)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경기지수는 67.3p로 전분기 42.2p 대비 25.1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67.7p 대비 -0.4p 하락하였음
- (기타권) 강원/제주지역의 경기지수는 79.3p로 전분기 81.8p 대비 -2.5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65.3p 대비 14.0p 상승하였음

분야별 디자인산업 경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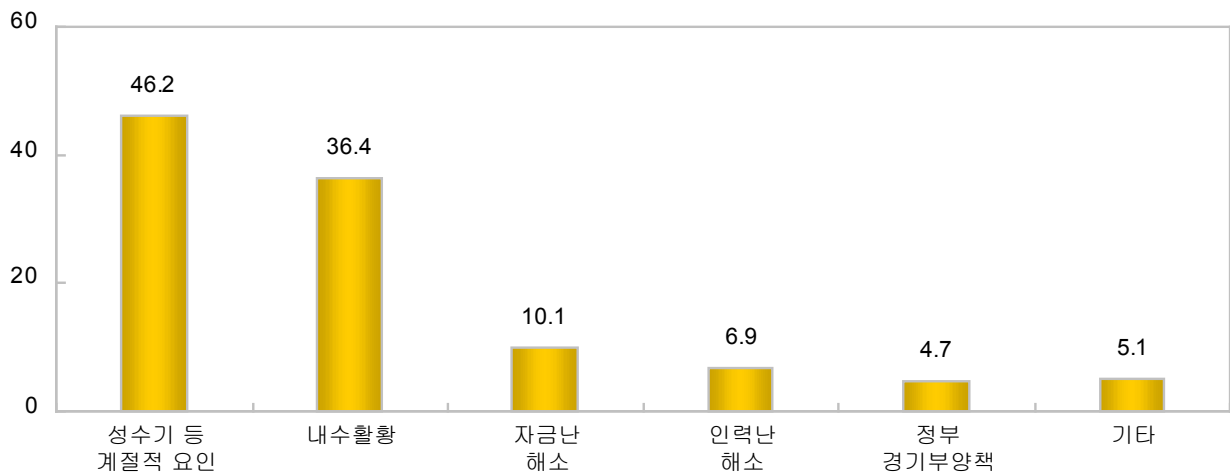


- (매출) 매출지수는 58.6p로 전분기 65.0p 대비 -6.4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69.2p 대비 -10.6p 하락하였음
- (채산성) 채산성지수는 53.0p로 전분기 62.3p 대비 -9.3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60.3p 대비 -7.3p 하락하였음
- (인력사정) 인력사정지수는 81.9p로 전분기 79.2p 대비 2.7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88.4p 대비 -6.5p 하락하였음
- (자금사정) 자금사정지수는 59.6p로 전분기 61.1p 대비 -1.5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85.5p 대비 -25.9p 하락하였음

※ 2012년 1분기 이전까지는 마케팅, 재무, 인적자원, 투자에 대한 경기현황을 조사함. 2012년 2분기 이후 각각 매출, 채산성, 인력사정, 자금사정으로 조정됨

1분기 경기 호전 이유

(중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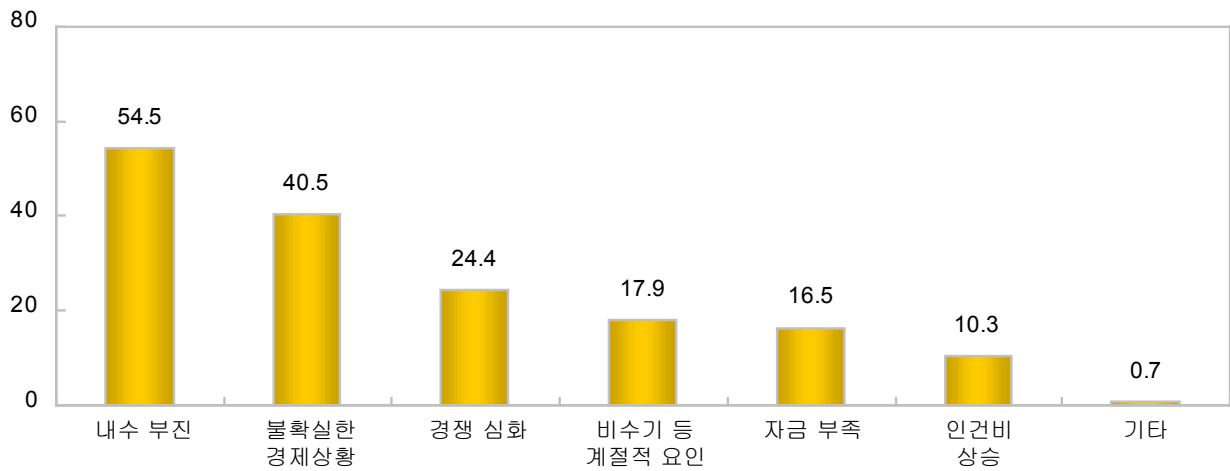
1분기 경기 호전 이유로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46.2%)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내수 활황'(36.4%), '자금난 해소'(10.1%), '인력난 해소'(6.9%), '정부 경기부양책'(4.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 | 내수 활황 | 자금난 해소 | 인력난 해소 | 정부 경기부양책 |
|-----|----------|--------------|-------|--------|--------|----------|
| 전체 | | 46.2 | 36.4 | 10.1 | 6.9 | 4.7 |
| 업종 | 제품 | 42.4 | 32.2 | 25.4 | 10.2 | 0.0 |
| | 시각 | 38.6 | 43.9 | 0.0 | 9.8 | 0.0 |
| | 인테리어 | 59.8 | 23.4 | 12.6 | 4.1 | 6.3 |
| | 기타전문디자인 | 26.8 | 73.2 | 0.0 | 0.0 | 26.8 |
| 규모 | 9인 이하 | 47.1 | 38.9 | 9.2 | 1.9 | 5.7 |
| | 10인 이상 | 42.2 | 23.9 | 14.7 | 32.2 | 0.0 |
| 권역별 | 서울 | 35.9 | 43.3 | 8.9 | 11.4 | 0.0 |
| | 경기/인천 | 74.5 | 10.3 | 0.0 | 0.0 | 15.2 |
| | 대전/충북/충남 | 100.0 | 0.0 | 42.4 | 0.0 | 0.0 |
| | 광주/전북/전남 | 100.0 | 0.0 | 0.0 | 0.0 | 0.0 |
| | 대구/경북 | - | - | - | - | - |
| | 부산/울산/경남 | 19.1 | 61.7 | 19.1 | 0.0 | 19.5 |
| | 강원/제주 | 0.0 | 100.0 | 0.0 | 0.0 | 0.0 |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 은 인테리어디자인(59.8%) 업체에서 더욱 높았고, '내수 활황' 은 시각디자인(43.9%) 기타전문디자인(73.2%) 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분기 경기 악화 이유

(중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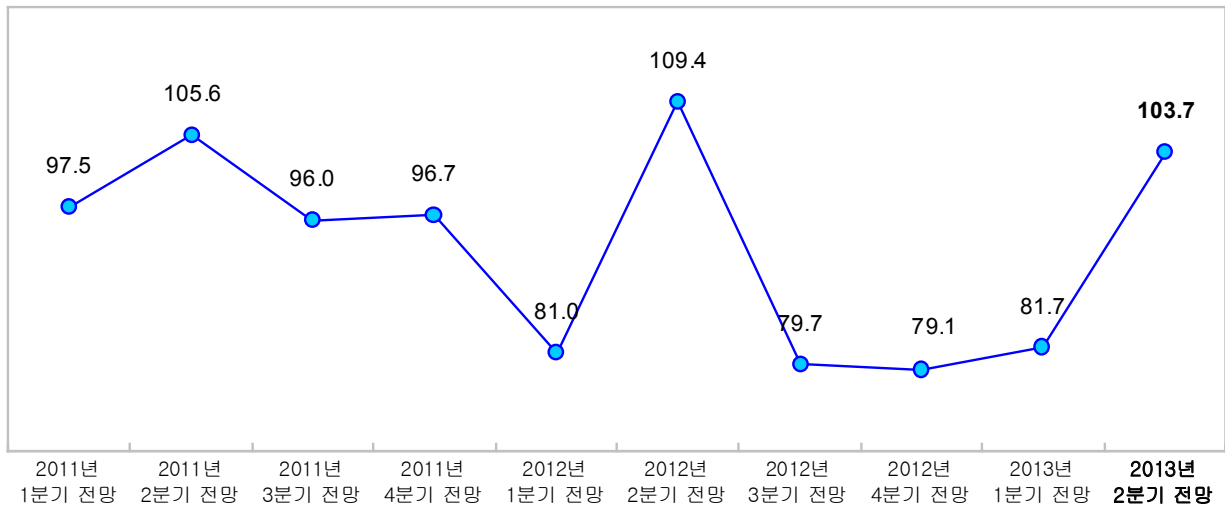


1분기 경기 악화 이유로 ‘내수 부진’(54.5%)이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은 ‘불확실한 경제상황’(40.5%)으로 나타남 이어 ‘경쟁 심화’(24.4%), ‘비수기 등 계절적 요인’(17.9%), ‘자금 부족’(16.5%), ‘인건비 상승’(10.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 내수 부진 | 불확실한 경제상황 | 경쟁 심화 | 비수기 등 계절적 요인 | 자금 부족 | 인건비 상승 |
|-----|----------|-------|-----------|-------|--------------|-------|--------|
| 전체 | | 54.5 | 40.5 | 24.4 | 17.9 | 16.5 | 10.3 |
| 업종 | 제품 | 67.5 | 32.8 | 23.7 | 17.7 | 12.7 | 7.8 |
| | 시각 | 46.1 | 47.0 | 24.4 | 18.5 | 17.1 | 9.9 |
| | 인테리어 | 42.1 | 38.6 | 32.5 | 23.2 | 27.6 | 12.7 |
| | 기타전문디자인 | 67.4 | 41.8 | 15.1 | 10.2 | 7.2 | 12.1 |
| 규모 | 9인 이하 | 57.1 | 40.2 | 23.6 | 17.4 | 16.7 | 9.5 |
| | 10인 이상 | 26.7 | 44.5 | 33.0 | 23.0 | 14.8 | 19.1 |
| 권역별 | 서울 | 56.5 | 40.7 | 26.3 | 15.7 | 14.5 | 11.3 |
| | 경기/인천 | 52.3 | 36.7 | 20.2 | 22.6 | 17.9 | 6.9 |
| | 대전/충북/충남 | 62.7 | 45.1 | 32.8 | 56.1 | 25.7 | 18.7 |
| | 광주/전북/전남 | 39.6 | 44.8 | 17.4 | 19.1 | 4.6 | 1.3 |
| | 대구/경북 | 48.9 | 16.6 | 16.7 | 10.5 | 29.5 | 0.0 |
| | 부산/울산/경남 | 38.2 | 62.4 | 22.2 | 7.5 | 21.6 | 18.8 |
| | 강원/제주 | 100.0 | 64.2 | 0.0 | 0.0 | 0.0 | 0.0 |

대부분의 계층에서 ‘내수 부진’ 응답 비율이 높은 가운데, 제품디자인(67.5%), 기타전문디자인(67.4), 대전/충북/충남(62.7%) 소재 업체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불확실한 경제상황’은 부산/울산/경남(62.4%), 강원/제주(64.2%) 소재 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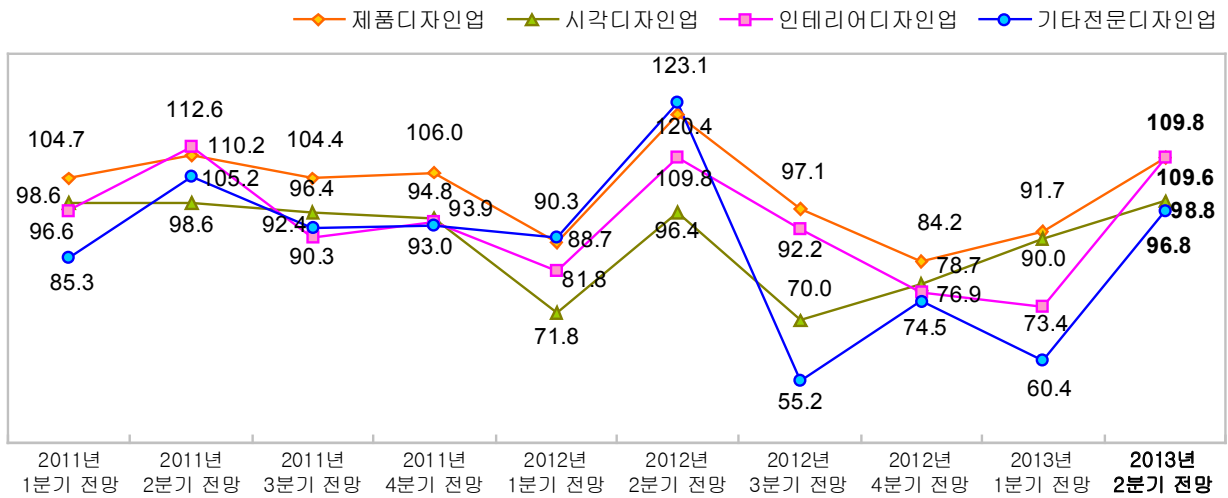
2. 2013년 2/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 전망



(경기전반) 전문디자인업의 2013년 2/4분기 경기전망지수(D-BSI)는 103.7p로 전분기 81.7p 보다 22.0p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분기 109.4p 대비 -5.7%p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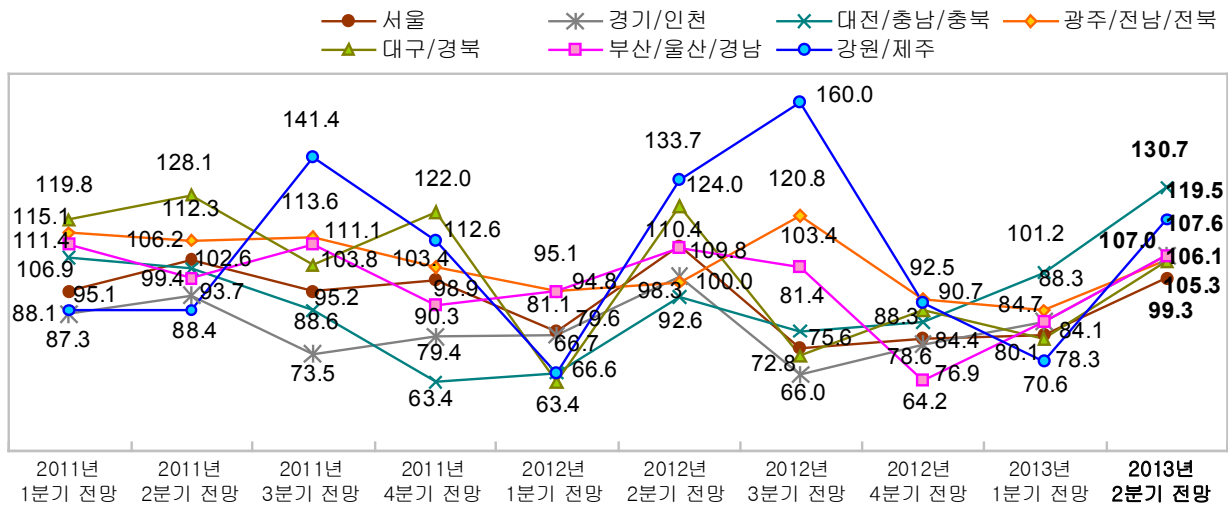
연초효과와 더불어 새정부 출범이라는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기전망은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분기에 비해서는 여전히 전망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기상승에 대한 기대는 단기적인 차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업종별 디자인산업 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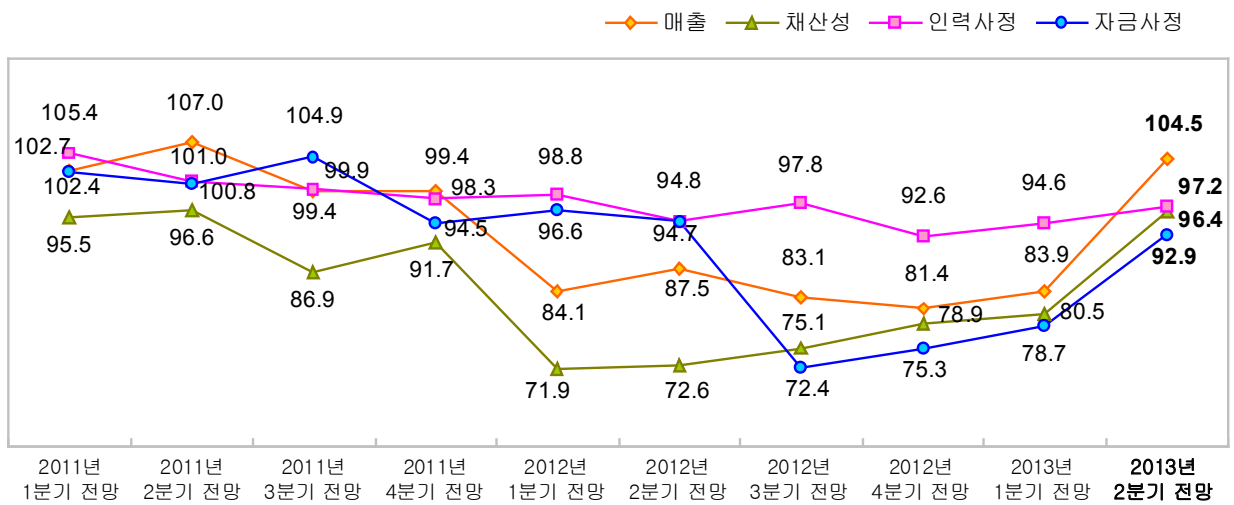
- **(제품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은 109.6p로 전분기 91.7p 대비 17.9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120.4p 대비 -10.8p 하락하였음
- **(시각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은 98.8p로 전분기 90.0p 대비 8.8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96.4p 대비 2.4p 상승하였음
- **(인테리어디자인업)** 인테리어디자인업은 109.8p로 전분기 73.4p 대비 36.4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109.8p와 같은 수준임
- **(기타전문디자인업)** 기타전문디자인업은 96.8p로 전분기 60.4p 대비 36.4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123.1p 대비 -26.3p 하락하였음

지역별 디자인산업 경기 전망



- (서울권) 서울지역의 경기지수는 99.3p로 전분기 80.1p 대비 19.2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110.4p 대비 -11.1p 하락하였음
- (경인권) 경기/인천지역의 경기지수는 107.6p로 전분기 84.1p 대비 23.5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100.0p 대비 7.6p 상승하였음
- (충청권) 대전/충남/충북지역의 경기지수는 130.7p로 전분기 101.2p 대비 29.5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92.6p 대비 38.1p 상승하였음
- (호남권) 광주/전남/전북지역의 경기지수는 106.1p로 전분기 88.3p 대비 17.8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98.3p 대비 7.8p 상승하였음
- (대경권) 대구/경북지역의 경기지수는 105.3p로 전분기 78.3p 대비 27.0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124.0p 대비 -18.7p 하락하였음
- (부울경권)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경기지수는 107.0p로 전분기 84.7p 대비 22.3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109.8p 대비 -2.8p 하락하였음
- (기타권) 강원/제주지역의 경기지수는 119.5p로 전분기 70.6p 대비 48.9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133.7p 대비 -14.2p 하락하였음

분야별 디자인산업 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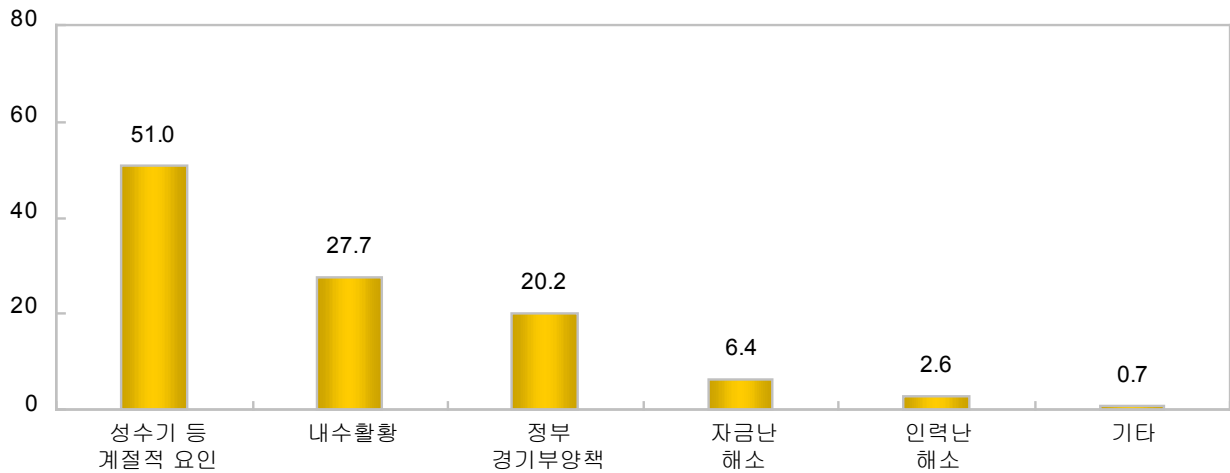


- (매출) 매출지수는 104.5p로 전분기 83.9p 대비 20.6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87.5p 대비 17.0p 상승하였음
- (채산성) 채산성지수는 96.4p로 전분기 80.5p 대비 15.9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72.6p 대비 23.8p 상승하였음
- (인력사정) 인력사정지수는 97.2p로 전분기 94.6p 대비 2.6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94.8p 대비 2.4p 상승하였음
- (자금사정) 자금사정지수는 92.9p로 전분기 78.7p 대비 14.2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94.7p 대비 -1.8p 하락하였음

※ 2012년 1분기 이전까지는 마케팅, 재무, 인적자원, 투자에 대한 경기전망을 조사함. 2012년 2분기 이후 각각 매출, 채산성, 인력사정, 자금사정으로 조정됨

2분기 경기전망 호전 이유

(중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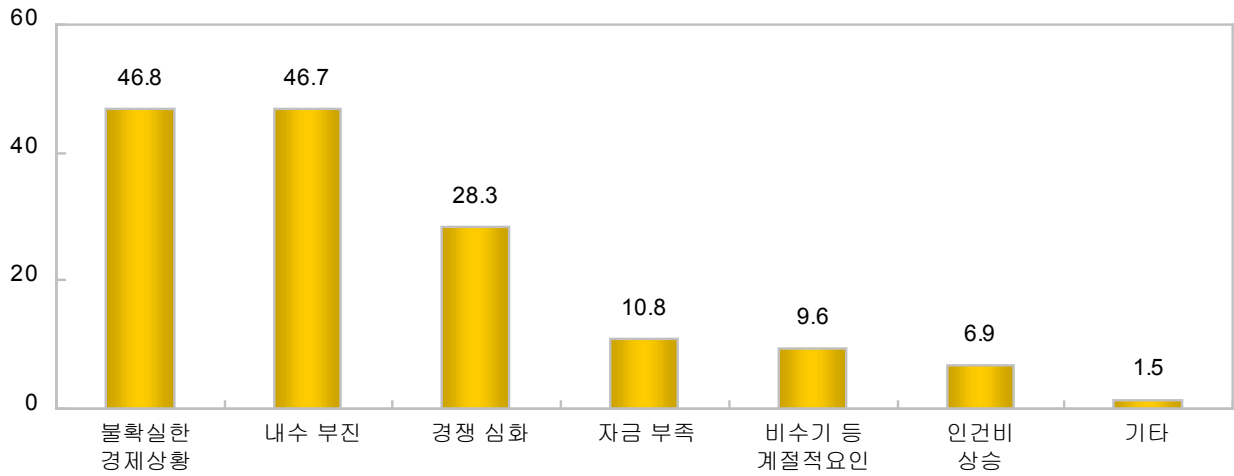
2분기 경기전망 호전 이유로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51.0%)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내수 활황'(27.7%), '정부 경기부양책'(20.2%) 순이었음. 그 외 '자금난 해소'(6.4%), '인력난 해소'(2.6%)는 10% 미만에 그침

| | | 성수기 등 계절적요인 | 내수 활황 | 정부 경기부양책 | 자금난 해소 | 인력난 해소 |
|-----|----------|-------------|-------|----------|--------|--------|
| 전체 | | 51.0 | 27.7 | 20.2 | 6.4 | 2.6 |
| 업종 | 제품 | 54.8 | 20.2 | 22.0 | 7.2 | 1.9 |
| | 시각 | 46.4 | 31.6 | 22.7 | 3.8 | 5.7 |
| | 인테리어 | 57.1 | 26.9 | 17.8 | 7.5 | 0.4 |
| | 기타전문디자인 | 41.6 | 37.7 | 13.9 | 9.2 | 0.0 |
| 규모 | 9인 이하 | 51.1 | 28.9 | 19.0 | 5.9 | 1.6 |
| | 10인 이상 | 50.1 | 20.6 | 27.9 | 9.4 | 9.0 |
| 지역별 | 서울 | 48.8 | 34.1 | 14.7 | 7.5 | 2.9 |
| | 경기/인천 | 71.0 | 12.7 | 30.3 | 0.0 | 0.0 |
| | 대전/충북/충남 | 49.5 | 12.1 | 31.8 | 14.9 | 0.0 |
| | 광주/전북/전남 | 52.0 | 0.0 | 31.7 | 0.0 | 16.3 |
| | 대구/경북 | 40.2 | 49.8 | 13.9 | 0.0 | 4.3 |
| | 부산/울산/경남 | 35.1 | 36.3 | 20.7 | 7.9 | 0.0 |
| | 강원/제주 | 58.0 | 7.5 | 34.6 | 7.5 | 0.0 |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 은 인테리어디자인(57.1%), 경기/인천(71.0%) 소재 업체에서, '내수 활황'은 기타 전문 디자인(37.7%), 서울(34.1%), 대구/경북(49.8%)소재 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분기 경기전망 악화 이유

(중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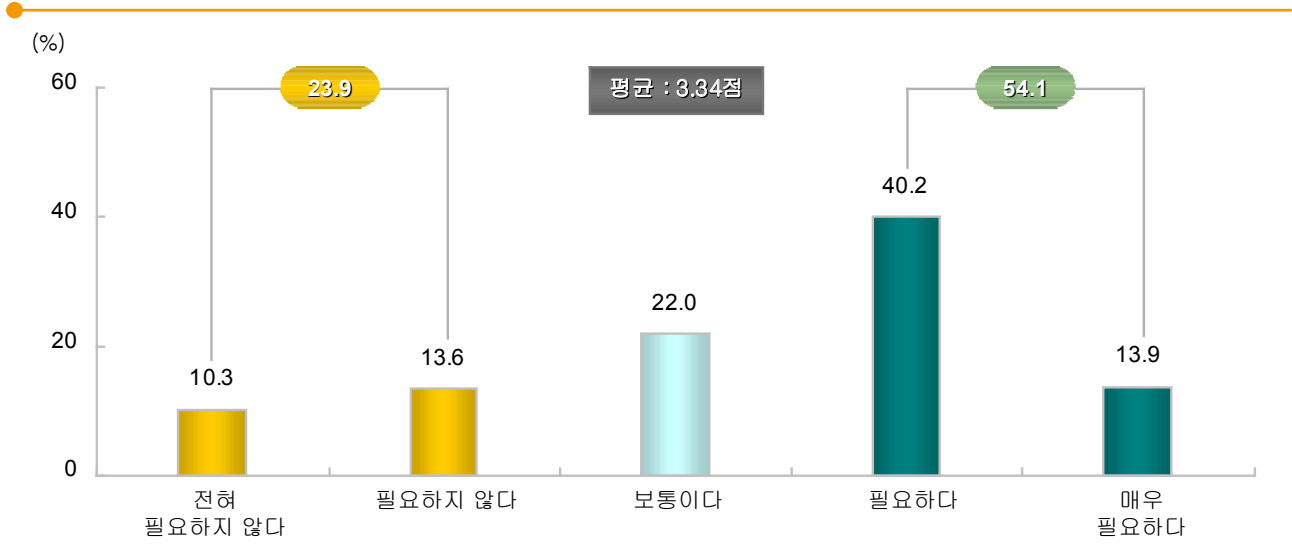
2분기 경기전망 악화 이유로 ‘불확실한 경제상황’(46.8%)과 ‘내수 부진’(46.7%)이 가장 많이 꼽혔음. 이어 ‘경쟁 심화’(28.3%), ‘자금부족’(10.8%), ‘비수기 등 계절적 요인’(9.6%), ‘인건비 상승’(6.9%) 등의 순으로 높았음

| | | 불확실한 경제상황 | 내수 부진 | 경쟁 심화 | 자금 부족 | 비수기 등 계절적요인 | 인건비 상승 |
|--------|----------|-----------|-------|-------|-------|-------------|--------|
| 전체 | | 46.8 | 46.7 | 28.3 | 10.8 | 9.6 | 6.9 |
| 업종 | 제품 | 41.0 | 60.7 | 27.7 | 10.4 | 11.5 | 5.9 |
| | 시각 | 41.5 | 41.2 | 38.7 | 10.4 | 10.0 | 11.3 |
| | 인테리어 | 63.4 | 19.6 | 22.5 | 20.6 | 0.0 | 4.6 |
| | 기타전문디자인 | 48.0 | 74.0 | 10.0 | 0.0 | 18.0 | 0.0 |
| | 구분 | 9인 이하 | 48.8 | 46.1 | 26.9 | 10.2 | 9.8 |
| 10인 이상 | 20.5 | 55.7 | 46.6 | 18.5 | 7.0 | 1.5 | |
| 별권역 | 서울 | 48.4 | 53.6 | 32.8 | 7.7 | 4.9 | 5.4 |
| | 경기/인천 | 31.9 | 51.9 | 14.5 | 24.4 | 12.5 | 6.3 |
| | 대전/충북/충남 | 84.2 | 21.1 | 42.1 | 21.1 | 15.8 | 42.1 |
| | 광주/전북/전남 | 52.0 | 3.0 | 16.5 | 3.0 | 25.9 | 3.0 |
| | 대구/경북 | 32.4 | 33.1 | 34.6 | 0.0 | 34.6 | 0.0 |
| | 부산/울산/경남 | 55.3 | 28.4 | 0.9 | 23.1 | 11.5 | 10.9 |
| | 강원/제주 | 0.0 | 0.0 | 50.0 | 0.0 | 50.0 | 0.0 |

대부분의 계층에서 ‘불확실한 경제상황’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인테리어디자인(63.4%), 대전/충북/충남(84.2%) 소재 업체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내수 부진’은 제품디자인(60.7%), 기타전문디자인(74.0%), 종사자 10인 이상(55.7%) 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 디자인전문기업 해외진출 현황

전문 디자인 업체의 해외진출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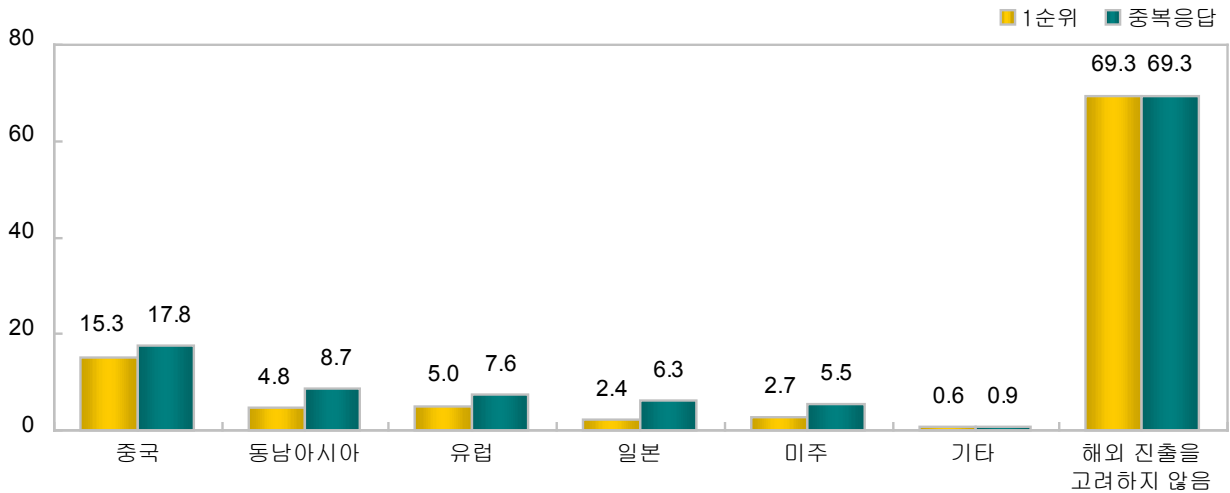


전문 디자인 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해 '필요하다'는 54.1%, '필요하지 않다'는 23.9%, '보통이다'는 22.0%로 전문 디자인 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해 과반 이상의 업체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 |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필요하다 | 평균(점) |
|-----|----------|---------|------|------|-------|
| 전체 | | 23.9 | 22.0 | 54.1 | 3.34 |
| 업종 | 제품 | 18.2 | 25.2 | 56.6 | 3.46 |
| | 시각 | 32.7 | 22.3 | 45.0 | 3.13 |
| | 인테리어 | 20.5 | 19.0 | 60.5 | 3.43 |
| | 기타전문디자인 | 18.8 | 20.4 | 60.8 | 3.47 |
| 규모 | 9인 이하 | 24.4 | 22.1 | 53.4 | 3.32 |
| | 10인 이상 | 19.9 | 21.2 | 58.9 | 3.45 |
| 지역별 | 서울 | 22.0 | 23.1 | 54.9 | 3.42 |
| | 경기/인천 | 29.3 | 16.2 | 54.5 | 3.10 |
| | 대전/충북/충남 | 11.8 | 21.4 | 66.9 | 3.64 |
| | 광주/전북/전남 | 66.1 | 12.7 | 21.2 | 2.30 |
| | 대구/경북 | 8.5 | 36.0 | 55.5 | 3.52 |
| | 부산/울산/경남 | 29.9 | 21.9 | 48.2 | 3.22 |
| | 강원/제주 | 0.0 | 15.0 | 85.0 | 4.02 |

대부분의 계층에서 해외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 인테리어디자인(60.5%), 기타전문디자인(60.8%), 대전/충북/충남(66.9%), 강원/제주(85.0%) 소재 업체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해외진출 희망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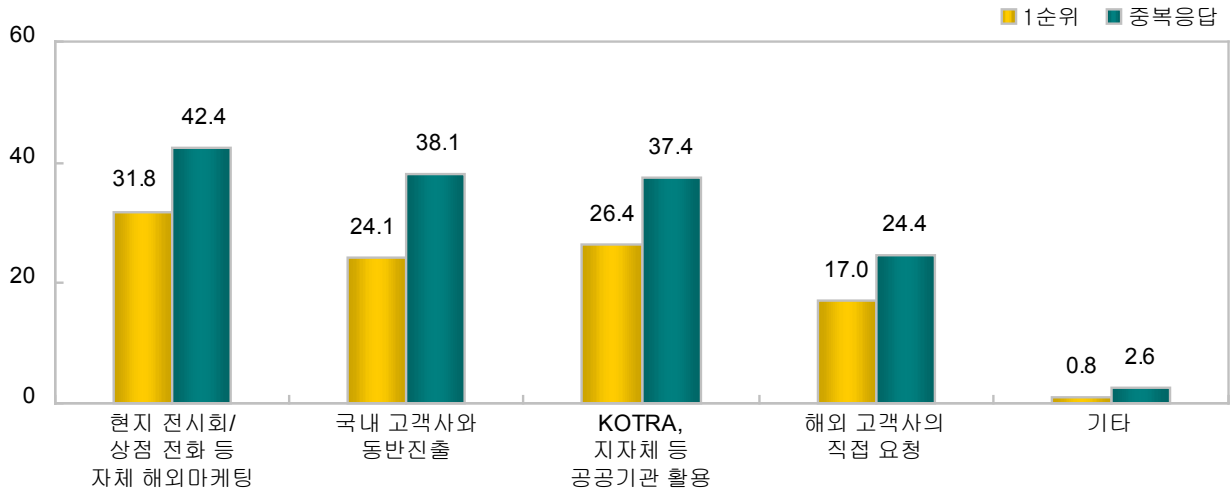


전문 디자인 업체의 69.3%는 '해외 진출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해외 진출 희망 국가로는(중복응답 기준), '중국'(17.8%)이 가장 높았고, 이어 '동남아시아'(8.7%), '유럽'(7.6%), '일본'(6.3%), '미주'(5.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 중국 | 동남아시아 | 유럽 | 일본 | 미주 | 기타 | 해외진출을 고려하지 않음 |
|-----|----------|------|-------|------|------|------|-----|---------------|
| 전체 | | 17.8 | 8.7 | 7.6 | 6.3 | 5.5 | 0.9 | 69.3 |
| 업종 | 제품 | 26.1 | 9.4 | 9.7 | 9.1 | 5.0 | 1.5 | 58.5 |
| | 시각 | 13.6 | 7.7 | 7.4 | 6.0 | 7.2 | 1.0 | 72.5 |
| | 인테리어 | 19.3 | 8.4 | 5.8 | 4.6 | 3.3 | 0.7 | 72.8 |
| | 기타전문디자인 | 11.4 | 10.2 | 7.4 | 4.8 | 5.8 | 0.0 | 74.5 |
| 규모 | 9인 이하 | 16.7 | 8.0 | 7.1 | 6.2 | 5.2 | 0.8 | 71.0 |
| | 10인 이상 | 26.0 | 14.5 | 11.8 | 6.7 | 8.3 | 1.5 | 54.9 |
| 권역별 | 서울 | 17.9 | 8.3 | 8.4 | 5.2 | 5.8 | 1.1 | 69.3 |
| | 경기/인천 | 13.5 | 13.9 | 3.6 | 2.1 | 5.3 | 1.7 | 67.3 |
| | 대전/충북/충남 | 28.0 | 7.6 | 5.5 | 9.7 | 7.3 | 0.0 | 66.1 |
| | 광주/전북/전남 | 6.3 | 9.9 | 7.9 | 3.6 | 0.0 | 0.0 | 80.1 |
| | 대구/경북 | 21.0 | 0.0 | 3.7 | 7.8 | 1.2 | 0.0 | 74.8 |
| | 부산/울산/경남 | 23.9 | 13.3 | 15.9 | 23.6 | 12.3 | 0.0 | 55.6 |
| | 강원/제주 | 14.6 | 0.0 | 0.0 | 6.3 | 0.0 | 0.0 | 85.4 |
| 필요성 | 필요하다 | 2.3 | 3.7 | 1.7 | 2.2 | .5 | 0.0 | 91.7 |
| | 보통 | 12.7 | 2.8 | 6.2 | 5.1 | 5.2 | 0.9 | 78.7 |
| | 필요하지 않다 | 26.7 | 13.4 | 10.9 | 8.6 | 7.8 | 1.3 | 55.5 |

전문 디자인 업체의 해외 진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업체 중에서도 해외 진출을 고려하지 않는 업체(55.5%)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해외 진출 희망 국가로 '중국'은 제품디자인(26.1%), 종사자 10인 이상(26.0%), 대전/충북/충남(28.0%) 소재 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해외진출 시 이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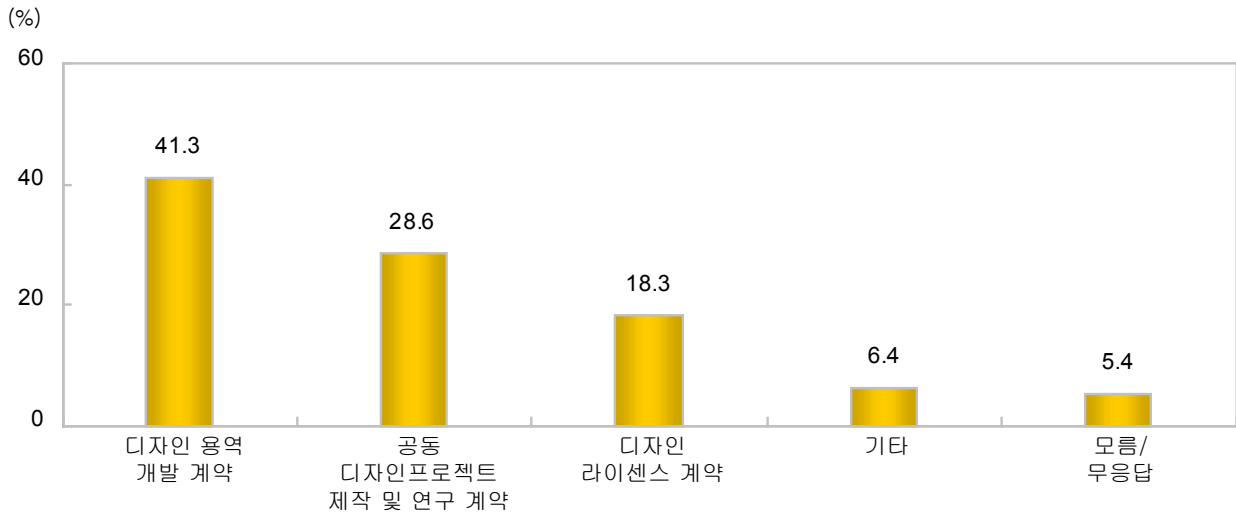


해외 진출 시 이용 방법으로(중복응답 기준), ‘현지 전시회/상점 전화 등 자체 해외마케팅’(42.4%)을 고려하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국내 고객사와 동반 진출’(38.1%), ‘KOTRA, 지자체 등 공공기관 활용’(37.4%), ‘해외 고객사의 직접 요청’(24.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 현지 전시회/상점 전화 등 자체 해외마케팅 | 국내 고객사와 동반진출 | KOTRA, 지자체 등 공공기관 활용 | 해외 고객사의 직접 요청 | 기타 |
|-----|----------|-------------------------|--------------|----------------------|---------------|-----|
| 전체 | | 42.4 | 38.1 | 37.4 | 24.4 | 2.6 |
| 업종 | 제품 | 54.3 | 30.5 | 27.5 | 31.1 | 4.3 |
| | 시각 | 30.7 | 40.1 | 46.3 | 25.1 | 0.0 |
| | 인테리어 | 32.0 | 58.8 | 35.6 | 9.6 | 5.9 |
| | 기타전문디자인 | 53.5 | 23.8 | 44.7 | 26.4 | 0.0 |
| 규모 | 9인 이하 | 42.3 | 39.8 | 39.2 | 20.4 | 2.5 |
| | 10인 이상 | 42.6 | 29.4 | 28.0 | 45.0 | 3.5 |
| 권역별 | 서울 | 40.3 | 35.6 | 32.8 | 29.5 | 3.0 |
| | 경기/인천 | 26.4 | 57.0 | 33.8 | 16.0 | 0.0 |
| | 대전/충북/충남 | 45.9 | 10.2 | 71.5 | 17.1 | 0.0 |
| | 광주/전북/전남 | 10.2 | 40.9 | 48.9 | 24.5 | 0.0 |
| | 대구/경북 | 64.2 | 19.3 | 20.6 | 16.5 | 0.0 |
| | 부산/울산/경남 | 72.3 | 45.5 | 61.2 | 12.6 | 8.3 |
| | 강원/제주 | 100.0 | 100.0 | 0.0 | 0.0 | 0.0 |

‘현지 전시회/상점 전화 등 자체 해외마케팅’은 제품디자인(54.3%), 기타전문디자인(53.5%), 대구/경북(64.2%), 부산/울산/경남(72.3%), 강원/제주(100.0%) 소재 업체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해외 프로젝트 계약 체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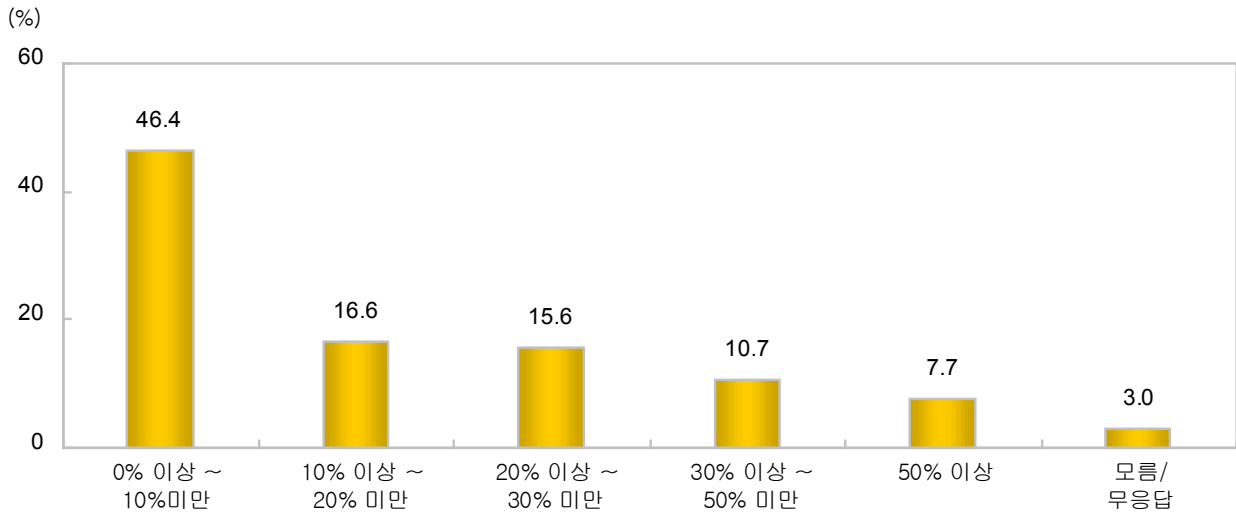


해외 프로젝트 계약 체결 방법으로 ‘디자인 용역 개발 계약’이 41.3%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동 디자인프로젝트 제작 및 연구 계약’(28.6%), ‘디자인 라이선스 계약’(18.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 디자인 용역 개발 계약 | 공동 디자인프로젝트 제작 및 연구 계약 | 디자인 라이선스 계약 | 기타 | 모름/무응답 |
|-----|----------|--------------|-----------------------|-------------|------|--------|
| 전체 | | 41.3 | 28.6 | 18.3 | 6.4 | 5.4 |
| 업종 | 제품 | 51.7 | 16.4 | 14.5 | 11.1 | 6.3 |
| | 시각 | 35.3 | 31.3 | 26.6 | 2.0 | 4.8 |
| | 인테리어 | 35.5 | 42.4 | 9.3 | 4.5 | 8.3 |
| | 기타전문디자인 | 37.0 | 34.1 | 21.4 | 7.6 | 0.0 |
| 규모 | 9인 이하 | 42.0 | 29.6 | 18.4 | 5.6 | 4.4 |
| | 10인 이상 | 38.0 | 23.6 | 17.7 | 10.5 | 10.2 |
| 별역권 | 서울 | 38.7 | 26.1 | 19.4 | 9.2 | 6.6 |
| | 경기/인천 | 52.5 | 28.3 | 15.6 | 0.0 | 3.6 |
| | 대전/충북/충남 | 55.3 | 44.7 | 0.0 | 0.0 | 0.0 |
| | 광주/전북/전남 | 38.3 | 7.9 | 33.3 | 0.0 | 20.4 |
| | 대구/경북 | 19.3 | 43.5 | 35.2 | 0.0 | 2.0 |
| | 부산/울산/경남 | 38.4 | 39.9 | 14.5 | 7.2 | 0.0 |
| | 강원/제주 | 100.0 | 0.0 | 0.0 | 0.0 | 0.0 |

‘디자인 용역 개발 계약’은 제품디자인(51.7%)에서 더욱 높았고, ‘공동 디자인프로젝트 제작 및 연구 계약’은 인테리어디자인(42.4%), ‘디자인 라이선스 계약’은 시각디자인(26.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012년 해외 매출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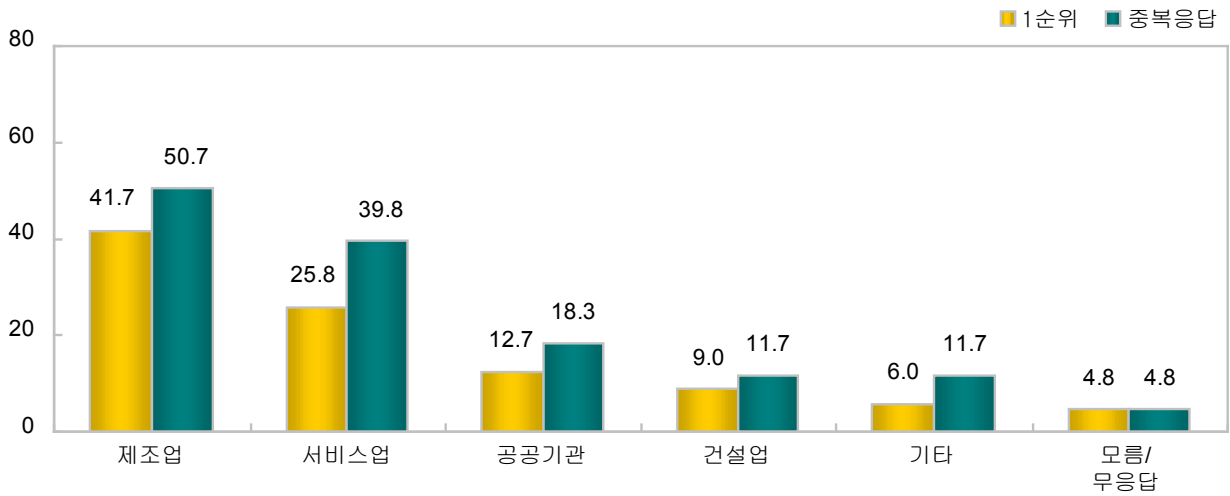


2012년 전체 매출액 중 해외 매출액 비중으로 '0%이상~10%미만'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 '10%이상~20%미만'(16.6%), '20%이상~30%미만'(15.6%), '30%이상~50%미만' (10.7%), '50%이상'(7.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 0% 이상 ~ 10%미만 | 10% 이상 ~ 20% 미만 | 20% 이상 ~ 30% 미만 | 30% 이상 ~ 50% 미만 | 50% 이상 | 모름/무응답 |
|-----|----------|---------------|-----------------|-----------------|-----------------|--------|--------|
| 전체 | | 46.4 | 16.6 | 15.6 | 10.7 | 7.7 | 3.0 |
| 업종 | 제품 | 39.7 | 20.7 | 15.1 | 9.7 | 12.8 | 2.0 |
| | 시각 | 48.9 | 15.0 | 21.1 | 7.7 | 0.0 | 7.2 |
| | 인테리어 | 46.5 | 15.0 | 17.4 | 15.3 | 5.8 | 0.0 |
| | 기타전문디자인 | 57.2 | 11.9 | 2.0 | 13.8 | 15.1 | 0.0 |
| 규모 | 9인 이하 | 45.8 | 16.1 | 16.1 | 11.2 | 8.5 | 2.2 |
| | 10인 이상 | 49.1 | 19.2 | 13.2 | 8.0 | 3.3 | 7.3 |
| 권역별 | 서울 | 44.9 | 21.9 | 12.7 | 10.9 | 8.1 | 1.5 |
| | 경기/인천 | 55.7 | 10.0 | 18.4 | 10.1 | 0.4 | 5.4 |
| | 대전/충북/충남 | 18.3 | 0.0 | 31.7 | 32.6 | 0.0 | 17.4 |
| | 광주/전북/전남 | 2.6 | 10.2 | 77.0 | 0.0 | 0.0 | 10.2 |
| | 대구/경북 | 54.2 | 2.0 | 14.6 | 14.6 | 14.6 | 0.0 |
| | 부산/울산/경남 | 66.0 | 12.1 | 1.0 | 0.0 | 21.0 | 0.0 |
| | 강원/제주 | 100.0 | 0.0 | 0.0 | 0.0 | 0.0 | 0.0 |

대부분의 계층에서 '0%이상~10%미만'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기타전문디자인(57.2%), 부산/울산/경남(66.0%), 강원/제주(100.0%) 소재 업체에서 더욱 높았음

2012년 주요 해외 고객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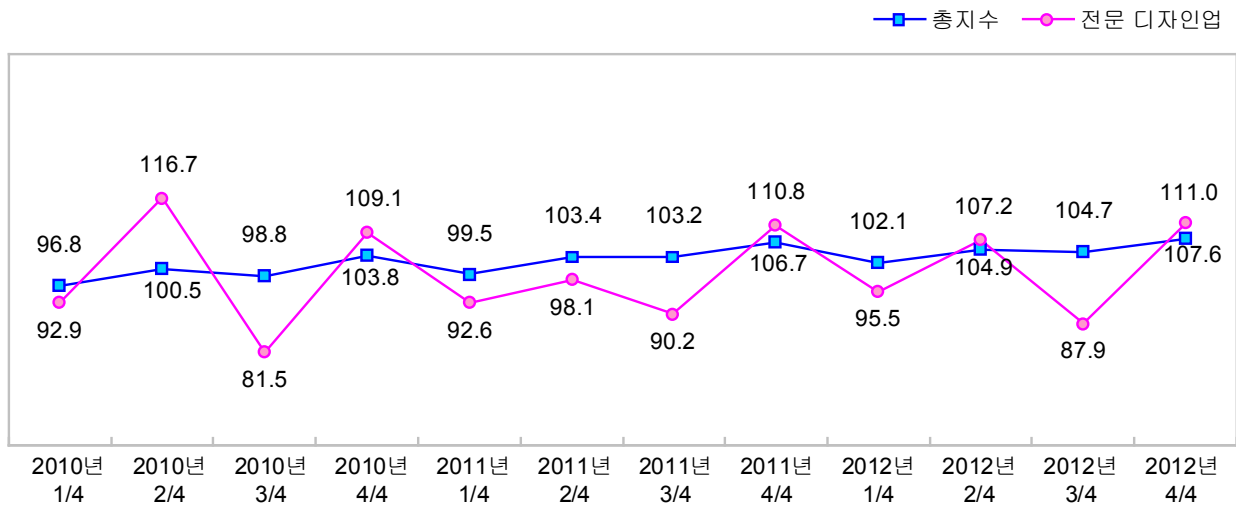
2012년 주요 해외 고객사로(중복응답 기준) '제조업'이 5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서비스업'(39.8%)으로 나타남. 이어 '공공기관'(18.3%), '건설업'(11.7%) 등의 순으로 높았음

| | | 제조업 | 서비스업 | 공공기관 | 건설업 | 기타 | 모름/무응답 |
|-----|----------|------|------|-------|------|------|--------|
| 전체 | | 50.7 | 39.8 | 18.3 | 11.7 | 11.7 | 4.8 |
| 업종 | 제품 | 68.0 | 31.7 | 12.2 | 8.6 | 14.3 | 2.0 |
| | 시각 | 45.2 | 38.0 | 20.7 | 1.6 | 11.9 | 9.3 |
| | 인테리어 | 20.7 | 37.3 | 29.7 | 36.6 | 9.4 | 3.0 |
| | 기타전문디자인 | 61.6 | 68.1 | 11.9 | 7.6 | 7.6 | 4.4 |
| 규모 | 9인 이하 | 51.4 | 38.8 | 20.6 | 11.1 | 11.7 | 4.4 |
| | 10인 이상 | 47.0 | 45.0 | 6.3 | 14.6 | 11.5 | 7.3 |
| 권역별 | 서울 | 51.4 | 43.3 | 13.1 | 14.7 | 16.0 | 1.5 |
| | 경기/인천 | 51.2 | 23.2 | 8.8 | 7.0 | 4.8 | 14.6 |
| | 대전/충북/충남 | 50.9 | 61.1 | 31.7 | 10.2 | 0.0 | 17.4 |
| | 광주/전북/전남 | 50.0 | 7.9 | 19.1 | 2.6 | 10.2 | 10.2 |
| | 대구/경북 | 8.0 | 64.1 | 19.3 | 0.0 | 14.6 | 0.0 |
| | 부산/울산/경남 | 67.7 | 31.9 | 48.2 | 9.4 | 0.0 | 6.5 |
| | 강원/제주 | 42.8 | 0.0 | 100.0 | 0.0 | 0.0 | 0.0 |

'제조업'은 제품디자인(68.0%), 기타전문디자인업(61.6%) 더욱 높았고, '서비스업'은 기타전문디자인업(68.1%)에서, '공공기관'은 인테리어디자인(29.7%)에서, '건설업'은 인테리어디자인(36.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4. 전문디자인업 생산지수 변화 추이

전문디자인업 생산지수



2012년 4/4분기 전문디자인업 생산지수는 111.0p로 나타남. 전분기 87.9p 대비 23.1p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분기 110.8p과 비슷한 수준임. 서비스업 총 생산지수는 107.6p로 전분기(104.7p) 대비 2.9p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분기 106.7p과 비슷한 수준임

※ 2012년 4분기까지 전문디자인업 생산지수 및 서비스업 총 생산지수는 2005년을 기준(100)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2013년 1분기 부터는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 통계개편(2013.02)'으로 인해 전체 지수가 2010년 기준으로 조정됨

■ 서비스업생산지수

서비스업의 성장세를 가능하는 핵심지표로서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업종의 생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 업종의 상대적 중요도인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것. 국가의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소의 서비스 동향분석 및 연구자료, GDP 추계 자료 등으로 널리 활용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